

진용욱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아이를 혼인시켰으니 빈둥지에 사시게 되었겠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여행이나 자주 다니세요. 여자들은 은퇴 후에 여행하는것을 가장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저희집 사람도 여행을 좋아해서 지난 8 월에는 내몽고 학회를 함께 다녀 왔으며, 지난달에는 뉴욕에서 출발하여 노바 스코치아로 올라갔다 오는 배여행(크루즈)을 다녀와서는 다시 뉴욕에서 차를 몰고 퀘백 (불어 사용하는 캐나다 동부)쪽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전번에 “정합성 결여”에 대한 질문을 올렸더니 여러 사람들이 정합성에 대한 말의 뜻을 논의하느라 한참 바쁘셨던것 같습니다. 중도에 신준 님에게 글을 올렸으나 내가 무엇을 잘못 놓렸는지 몇분에게만 내용이 전달되었기에 그 내용을 일부 다시 여기에 올립니다.

“나는 태어나서 첫 9 년은 일본어 문화권에서 자랐으며, 지난 42 년간을 영어가 주어진 미국에서 살고있으며, 그 중간에 한국군이 거의 없는 미국 고사포 부대에서 2 년 반(57-59)을 생활했으며, 한국 말이 신통치않은 서양 선교사와 3 년(59-62)을 함께 살았으며, 한국인이 전연 살지않던 뉴질랜드에서 2 년 반을 (64-66)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이 아주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사용할 때에는 자주 교정이나 재해석하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일단 컴퓨터에 한글로 입력을 하고 다시 종이에 찍어 한글을 잘 아는분의 교정을 받아서 이메일에 올려붙여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쓴 글이기에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整合性 缺如”라는 말은 “..와 안맞는다”고 간단하게 쓰면 제가 쉽게 알아듣습니다. 쉽고 고운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해야지 들어온 말과 어려운 말을 써서 그것 가지고 해석만 하고있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라는 글씨를 두고 우리 조상들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한자 가지고 학자들끼리 상투잡고 싸우고만 있다가 나라를 몽땅 빼앗긴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자들의 글판 논쟁을 들어보니, 알맹이가 빠진 이야기들이 오가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글판에 한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논의하고있는데 모두들 알파벳 글자를 다루는것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글판은 69 년도에 표준화된 2 벌식 테레타이프용 한글 글판을 82 년도에 컴퓨터 용으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 자모를 자음과 모음으로 차례대로 입력하면 컴퓨터 내부에서 이를 다시 마디글(syllable)로 모아주는 오토마타(Automaton 이라는 라틴어의 복수형)에 의해 3 벌식으로 전환을 해주고, 이 바뀌어진 마디글의 코드와 2,350 자의 완성형 코드를 맞추어 내보내도록 해두었습니다.

한글 자모를 자음과 모음으로 차례대로 입력하여 모아진 마디글로 만드는 과정에서 같은 겹자모가 이어질 경우 어느것이 첫소리 자음인지, 혹은 마지막소리 자음인지 구별이 안되기에 이를 위해서 4 개의 쌍 자음(ㄱ, ㄸ, ㅌ, ㅍ,)을 따로 만들어 윗 글쇠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이 26 자이기에 이에 맞추느라 쌍모음 ㄱ와 ㅌ자를 더 넣고 그 위에 또 ㅌ와 ㅍ를 더 얹어놓아 모두 33 자가 된것입니다.

자판에 3 벌식으로 얹어 놓으면 컴퓨터 내부에서 3 벌식으로 전환하는 오토마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아진 마디글의 코드(2,350 자의 현대 글이나 11,172 자의 완성형 글자)를 바로 찾아 내보내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려진 자모를 하나씩 내보내든지(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1,900 여자의 조합형 글자체 사용), 앞으로는 세계의 모든 언어를 모두 조합형으로 그려 내보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문자 처리 전문가들의 성경책으로 불리우는 The Unicode Standard V.5.0(p. 201)에는 영어 알파벳과 한글은 완전히 다른 글씨체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Featural Syllabaries(생김새 마디글, 자질 음절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나는 기관의 생김새(자음)와 우주 만물의 중요한 3 요소를(하늘, 땅, 사람) 형상화한 글이라고 다른나라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알파벳으로 착각하고 사용하고 있지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영어는 라틴어 글씨체에 속하며, 라틴 글자는 원래 희랍 글자였습니다. 희랍 글자로 사용되기 전에는 히브리어와 사촌인 Phoenician 글자였습니다. 나는 희랍글자(Alphabets)와 히브리 글자(abjads-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알파벳)를 좀 배웠기에 영어 알파벳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왔는지를 좀 압니다. 원래는 한자처럼 그림글자(Pictographic Character)이고 뜻글자(Ideographic Character)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기에 소리값(음가)이 하도 많아 영어를 주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발음 기호가 없으면 발음이 잘 안되고 처음 말을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어려서부터 소리마디(음절)를 따로 가르쳐야되며, 철자법도 억망이어서 글을 쓰고 읽고 발음 제대로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모합니다. 우리글은 ㄹ 자와 ㅇ 자 빼고는 소리값이 아주 일정합니다. 영어의 A 자는 아,에이,어, 오,으, 우 등, 발음이 11 가지입니다. 우리글의 ㅏ 자는 아라는 발음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어려서 긴 단어를 어디에서 띄어야하는지를 따로 배워야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글자가 한마디 소리글자로 적고있기에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 글판 연구자들이 잘못가고있는 일은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글판은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사람이 사용하는 기기인데 사람을 동원한 실험을 하지도 않고, 자모인지 구조와는 정합성이 결여된다는 말이나, 글판의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나, 영문 자판과 맞지 않는다는 말들은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말하는것과 꼭 같습니다. 김경석 교수가 얼마전에 이미 지적한것처럼 사람을 동원한 실험은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실험을 제대로한 연구가 없습니다. 82 년도에 한국의 박흥호 님이 표준 2 벌식 자판과 공병우 3 벌식 자판과의 비교 연구가 된것이 있지만 이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비교 연구이기에 인체 실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영어의 문자 입력 연구는 1936 년에 와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드보락 교수가 책으로 발표한 (Typewriting Behavior) 인체 실험에 의한 아주 좋은 자료가 나오기 시작한 후에 미국 해군성에서 실험한 내용 등 오래도록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었으며, 그 후 1982 년도에 미국에서는 드보락 자판이 제 2 의 표준 자판으로 지정된 후에는 인체 실험에 의한 연구 논문은 좀 뜸해졌습니다.

한글은 아직 인체 실험에 의한 연구는 내가 미국에서 실시한것(77 년-현재)과, 중국에서 연변대학의 김숙자 교수가 실시한것(96-97 년)과, 평양의 사회과학원이 실시한(01-02 년) 내용 이외에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는분들 가운데 한글 입력분야의 인체 실험을 통한 연구 자료가 있으시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문으로 "HANGUL(Jeungeum)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The Most Scientific Phonetic Writing System 이라는 부제로 책을 집필 중입니다. 자료로 필요하니 꼭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 내용에는 It's Application of All the Languages on Digital Devices 라는 부록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컴퓨터용 글판과, 12 키용 글판과 스마트폰용 글판이 모두 실려지며, 글쇠 위에는 영문으로 된 책이기에 한글과 같은 소리값을 가진 알파벳이 그려지게 될것입니다. 내부 코드까지 모두 공개하여 출판될것이기에 세계의 모든 문자 입력 연구자들이나 업체에서 활용하게 될것입니다.

진교수님이몇해전에 한국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샌디에이고로 가시는 중에 저희 사무실에 잠깐 들러보셨던 안마태 연구실의 전시실에 마련된 전시물에는 그날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연구에 사용된 기기들만 눈요기를 하셨지만 그 방의 까만 캐비닛 안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에서 실험한 내용, 중국에서 실험한 내용, 평양에서 실험한 내용들이 모두 그 캐비닛 안에 들어있습니다.

같은 글판으로 만들어진 중국어 입력기의 개발 과정에서 생겨진 실험내용들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미국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중국어를 개발해준 평양의 PIC(평양정보센터)에는 어떤 실험자료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 소리가 나오는 안마태 소리글판용 프로그램을 짜서 보내온것으로 보아서는 그곳 PIC 에도 상당한 실험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안마태 정음 건반에 관심을 갖고있다니 아마 그곳에서도 실험을 하고있거나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모두 모아서 책에 모두 소개하여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 여러나라에 알리고져 합니다.

내가 한글 글판 연구에서 실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신 두 스승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한분은 최현배 선생이고 다른 한분은 공병우 선생입니다.

최현배 선생님은 내가 학교 신문사(연세 춘추사) 일로 한글 가로풀어쓰기라는 연재물을 받으러 선생님 방(부총장실)에 가서 한글 가로 풀어쓰기에 대한 토론을 많이했고(62-63년도), 내가 오산 비행장에 있었던 미 제 10 대공 포단 본부에서 군대 생활 중에 익혔던(57-59년) 영문 테레타이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고, 때로는 그분의 연재물을 익혀서 가끔 질문도 많이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단어는 ㅁ ㅏ ㅑ ㅓ ㅕ ㅗ ㅛ 로 풀어 쓰면 “악기다”로도 읽을수가 있고 “아끼다”로도 읽을수있는 모순 등), 뉴질랜드로 공부하러 간다고 인사를하러 갔던날 선생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니는 국문과 학생도 아인데 한글을 마이 아니까, 가서 신학만 공부하지말고 그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지들 기계로 잘 쓰는지 잘보고 배워오이라” 했습니다. 내가 대구 촌놈인것을 잘 아니까 나한테는 꼭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보고 배우라는 말씀은 책이나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고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배워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병우 선생님은 광주 양민 학살 사건이 일어나자 한국 공관에 데모하러 갔다가 만난분인데, 그후 사는곳은 동부(그분은 피라델피아)와 서부(나는 허리우드)로 갈라져 있었으나 전화로, 서신으로, 때로는 직접 만나서 함께 몇일씩 자면서 연구와 토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40년대부터 타자기 연구를 하셨고, 나는 70년대부터 컴퓨터의 글판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기에 근본적으로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분이 주장하시던 한글 3벌식이 바른 정답임을 알게되었고, 내가 그분의 글판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 꼭 한번씩 실험을 해보고 토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글판의 자리를 제안하시면서 꼭 먼저 실험부터 해보고 토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글판에는 공병우 선생이 제안하시고 내가 실제로 실험을 해본 내용이 많습니다. 그분이 조국으로 귀환하셔서 마지막 글판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 내가 제안한것도 들어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너무 영문 자판에 맞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한글에 맞는 글판을 만들도록 권고해 드리며, 너무 기계적이신데 신경 쓰지마시고 사람에게 맞는 글판을 연구하시도록 권고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내용은 한글이 대한민국의 전유물이 아닌것을 명심하시도록 권고해 드립니다.

한글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중화인민 공화국입니다. 사용 인구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지만 나라의 숫자로는 3 개국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한글의 세계화를 떠들어왔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획득한 중국의 5 대 법정문자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글의 세계화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민 1 인당 가장 많은 빛을지고있는 나라이기에 국제적인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빛을 가장 많이 떠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새로 떠오르는 나라의 5 개 공식 문자가 될것에 자부심을 가져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글쇠가 숫적으로 지정되어있던 글판은 이제 점점 자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정 글쇠가 필요없고 유리판에 마음대로 그려서 쓰는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논의해오던 글쇠 이야기는 이제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서로 양보해가며 의논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글쇠를 만들도록 멀리 태평양 건너서 두손모아 빌겠습니다.

안마태 드림